

연중 제 33 주일  
(평신도의 날)

기도서 478 면(B해)

제1독서: 다 니 12, 1-3

제2독서: 히 브 10, 11-14, 18

복 음: 마 르 13, 24-32

#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마르 13, 31)

□ 감 론



## 구원과 교회의 사명

김 인 협

오늘은 11월 세계주일로써,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읽어야 할 구약과 신약성서들의 말씀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저는 구원과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마련이지만 죽음으로 인생이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날엔가 모두 다시 살아나,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패배와 수치를 당합니다.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의는 곧 "시련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어 깨끗하여진 사람들이 차지할 특전과 지위가 강조되며, 그 사람들은 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단 한번 바치신 제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치는 희생제사로 인류구원을 위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마르복음 13장을 보면 "사방에서 뿔뿔히 찢어진 사람들을 모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리라 하고 선택받은 사람들을 모아 당신과 결정적인 친교를 맺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스승의 말씀과 표양을 따르면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요한 1서 5:3)

오늘의 말씀 내용들은 한결같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모든 이들에게 지질줄 모르는 사랑을 바쳐 헌신 봉사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과 애정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에게 당신 자신 외에 아무것도 주신 것은 없었습니다.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생명 뿐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사람들을 위해주고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가난해지고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 억눌리면서 그들을 위해 자기의 전부를 던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교회는 세상을 실패하는 동시에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와 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는 오늘의 교구 평신도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교구 평협회장)



## 아리송과 무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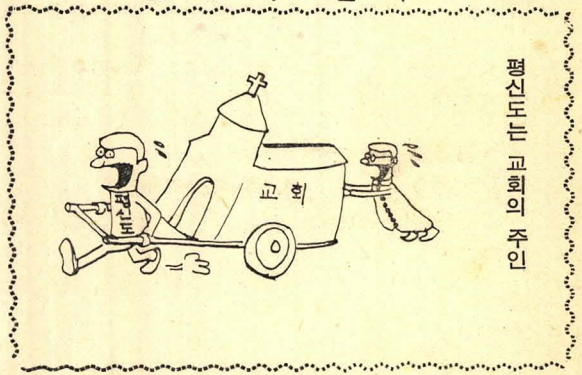
한 때 「아리송해」라는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유행가의 가사 내용이야 어떻든, 무어가 무언지를 모르는 가운데 아리송한 소리무중 속을 헤매던 세태를 표현한 한 마디임에는 틀림없다. 요사이도 신문을 보노라면 아리송한 대목이 한 둘이 아니다.

지난 12일자 동아일보 2면의 「여론」을 읽다보면 "최근 신문 칼럼니스트들에 대한 정부측의 경고"라는 기사를 만나게 된다. 신문 보도의 기사는 그 내용의 신속 정확성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도 밀도 끝도없이 끝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가 있었다는 표현만 나온다.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떤 칼럼을, 어느 대중매체에, 어떻게 썼을 때, 정부 어느 기관에서 무어라고 경고했다는 말인가? 아리송하다. 대정부질의 내용 자체가 그런지, 아니면 신문 보도가 대강대강인지 아리송하다. 이진 도대체가 「알권리」를 가진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주위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이 더러 있다. 요순시절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답답하니까 그런 모양이다. 그러면서도 정기국회가 열리면 조금은 달라진다. 정확한 보도가 없이 떠돌던 이야기들이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조금은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문서답 같은 내용이 신문에 알려지면 또 한 번 가슴이 답답하다. 이러니 정치에 무관심할 수 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무관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세상을 삭막하게 하고, 제 나라에 대한 무관심은 국가의 장래를 망치고 만다. 죽음을 묵상하는 이 11월, 우리는 자신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육신 사정에는 날래나 영신 사정에 무관심하지는 않는지! 오늘이 평신도 주일인데, 하느님 백성의 일원으로 평신도의 뒤에 무관심하지는 않는지!

## 순정이 산책





### 교구설정 50주년 기념 공모

—희망과 믿음,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

선조들의 순교정신을 이어받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깊이 심화시킴으로써 명실공히 자치교구로서의 발전된 모습을 대외에 알리고 우리들의 신앙적 충정을 북돋울 수 있는 참신하고 내용있는 심플-마크와 교구설정 50주년 주제가 될 수 있는 표어를 공모합니다.

교구설정 50주년이 우리 교구의 모든 이에게 믿음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도록 시도되는 이번 공모전에 교구 전체 신자들의 호응을 기대하며 성직자, 수도자, 신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 모 내 용〉

① 심플마크

교구설정 50주년을 기념하고 주제가 표현되는 심플마크

② 주제(표어)

교구설정 50주년을 기념하고 주제가 표현되는 표어로써 신자들에게 희망과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

〈모 집 마 감〉 85년 11월 25일

\*심 사: 각 분야 전문위원

\*응모요령: 일반 응모요령에 준하며, 응모된 내용은 반환치 않음

\*보 낼 곳: [520] 진주시 서노송동 560-6  
진주교 전주교구청 홍보국

\*당 선 작: 교구설정 50주년 기념대회시 교구장의 포상과 표창

\*주 최: 50주년 중앙위원회 홍보부

#### 성서교실 ㉓

###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겨우 랩톤 두 개를 넣었다. (마르 12: 41)

이 기사(記事)는 참으로 아름다운 내용으로서 신도들에게나 비신도들에게나 다 감동을 준다. 이 기사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와서 3일째 되던 날 일어난 사건으로, 그 전에 예수 권위문제, 대사제들, 학자들과의 토론, 세금바치는 문제, 칠팔째는 계명,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대한 비난 등의 기사가 나온다. 이 기사는 마르코·루카복음에만 나온다.

이 내용은 하느님 앞에 소용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이다. 「마음이 내켜서 하는 일이라면 가진 것에 얼마를 바치든지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받으실 것이다」(고후 8: 12). 헌금은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는 마음 여하가 문제인 것이다. 하느님을 구(求)하려는 것은 바치는 물(物)이 아니고, 그의 마음인 것이다. 순일무잡(純一無雜)한 사랑과 신뢰와 감사의 마음만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 약한 사람들에겐 무엇인가 큰 위안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복음이다. 우리는 무력·무능해서, 하느님께 무엇 하나 바칠 것이 없다. 우리는 학문도, 돈도, 사업도, 덕도 하느님께 바칠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바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과부의 마음이다.

「두 랩톤」은 과부의 전재산이었다. 여기서 「둘」(二)이라고 하는 숫자, 우리는 열두에 두어야 한다. 「과부는 그 중의 하나를 남겨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의 「둘」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과부는 전부 바쳤던 것이다. 이것을 예수가 기뻐한 것이다. 하느님은 완전하다. 성(聖)은 완전을 의미한다. 고로 하느님은 모든 「완전」, 전부를 바란다(신명 6: 4-5 참고). 우리는 하느님 앞에 「무산자」이다. 건강도, 학식도, 재산도, 도덕도, 신앙도 전부 하느님께 바쳐져야 한다. 「자기 것」이라곤 있을 수 없다.



-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 \*건강은 질병을 미리 예방해야 하며
- \*40대 이후는 1년에 한번씩 진단을 받는다

### 박 임 상 병 리 검 사 실

군산 ☎ 3-7150 (동남외과의원 내)  
병리사 박 루 가(영취)

컴퓨터 상담  
양약, 한약, 생약, 조제

교우 여러분에게 이전 개업인사를 드립니다

### 근 화 약 국

약 사 이 영 수(도미니카)  
☎ 2-2618  
효자동성당 입구(서부시장 앞)



# 교 구 소 식

## 교구설정 50주년 기념행사

1. 개회미사 : 1985. 11. 30(토) 오후 2시, 천호성인의 묘역 광장
2. 성인의 묘 축성식 : 당일 미사후

1. 참사회(인사재정) : 20일(수)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2. M·E 사도직 프로그램 "참 부모가 되는 길" : 대상-8·9·10차 M·E 가족  
일시-11월 24일 10시부터, 장소-가톨릭센터  
회비-부부당 5천원(점심 제공)
3. 교구 꼬미시움 회의 : 일시-11월 17일 14시, 장소-전동 천주교회  
참석대상-각 꼬미시움 간부 및 산하 꾸리아 직속쁘레시디움 간부 전원
4. 군산 루르드의 성모 꼬미시움, 이리 치명자의 모후 꼬미시움 :  
일시-11월 24일 14시, 장소-군산-둔율동 천주교회, 이리-창인동 천주교회  
참석대상-산하 꾸리아 및 직속 뿌레시디움 간부 전원
5. 축 ! 본당설립 90주년 : 수류 천주교회, 27일(수) 10시30분  
기념행사-감사미사, 기념식, 축하연

### 감 사 합 니 다

금번 세상을 떠나신 저희 어머니(진상례·마르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열려  
해 주신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희남 신부 올림-

### ♣ 잡 간 !

#### 600원에 담긴 아름다움

홍보국 사무실에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찾아왔다. 차림새를 보아 가난한 사람이  
란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분은 자리에 앉으시면서 자기는 여기저기 다니며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행  
상인으로 그날 그날을 벌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했다.  
지난 일요일 ○○공소에 가서 공소에절을 하는데 「주님의 날」을 두 사람만 들고 하더  
라는 것, 그래서 자신이 가진 돈 600원을 내놓으며 그 공소에 2권을 더 보내주라고 했  
다. 대단한 일이 아니므로 자신의 일을 밝히지 말라고 했지만 「과부의 헌금」을 실제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움을 물어두기엔 너무나 아까와 숲정이 독자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편집자의 지나친 욕심일까?

이웃 사랑-우선적으로 이웃의 처지에 대한 관심일 게다.

우리 공소의 처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공소 신자들을 위한 유일한 사목  
잡지인 「주님의 날」을 보내자. 미사도 참여 못하는 공소의 모든 신자들이 주님의 날을  
손에 들고 기도하게 하자.

□이전 개업

### 대 건 회 관

연회석 완비  
단체손님 환영  
한성여관 뒷편,  
문산부인과 앞  
☎ 07566 · 03170  
김한영(안토니오)  
하정희(엘리사벳)

동산성당 신축을 위한

### 근무용단 전주 자선공연

일시 : 1985년 11월 28일(목) 오후 7시(1회 공연)  
장소 : 전북 학생회관  
회원권 구입 : 각성당 사무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동산성당 신축위원회 주임신부 : 권이복(분도)

## 요심이 (641) 김병오

최루탄수입비용이  
99억원사용



서울국제경기대회경비  
128억원사용



교수장수입 4억5천만원  
외배수입대금 30억원사용



세계에서 외체가  
4번째로 많은  
나라에서...  
모두 똑같은!



-성인병은 "치료보다 예방을-

### 영지! 영지! 영지!

◎ 2천년도 월성 건부터 선초라  
고 해서 만병에 사용되었다.  
때로는 불로장수의 약이라는  
전설까지 생긴 이상한 나무  
새끼들.

-보건신문 83년 2월10일자-  
불로선초 「영지」의 배일을 벗  
긴다에서

◎ 영지의 효능

- \*암 \*당뇨 및 간염예방
- \*동맥경화·고혈압·중풍·어혈
- \*위와 장질환
- \*관절염 및 신경통
- \*기관지염 및 간기능강화
- \*기타 성인병과 노화방지

◎ 봉사하고 있습니다

- \*직접 재배하기 때문에 값도  
싸고 양도 더 드립니다
- \*포장된 선물용도 있습니다

### 월성 영지농장

이리시 월성동  
(글라라 봉쇄 수녀원 앞)  
04773 · 08953  
강 영 순(제노베파)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웅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의 철  
아파트 75-6389 사도회장 이 흥 재

1. 구역대항 연도대회 : 2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당 계서관에 게시된 조구성 및 조별 출전시간표를 참고하시고, 출전시간 30분전까지 나오세요
  2. 축! 평신도주일 : 오늘은 평신도의 날입니다. 오늘 각 미사에 2차헌금 있습니다. 협조바랍니다
  3. 형제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4. 교우의 집 문패를 달읍시다 : 각 가정에서는 꼭 달으세요, 1개-200원, 각구역장님과 본당사무실 판매중
  5. 수험생을 위한 미사봉헌 : 19일 오전 10시30분·저녁 6시에 봉헌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6. 아파트 요셉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7. 신년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각 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 및예산서를 다음주일까지 제출하세요
  8. 공소회장님들 : 19일 오후 3시-신원리공소 각 공소회장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9. 교무금 납부의날 :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무금을 속히 완납하여 본당운영에 협조합니다
  10. 공소 순회미사 : 23일 저녁 8시, 황윤리공소
  11. 금주전례 : 제1주, 차주는 제2주가 담당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 476,985원 교무금 : 247,200원  
신축금 : 110,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 영 균  
사무실 2-5238 사도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1. 가정방문 : 20일-진복동 1·2반, 21일-진복동 3·4·5반, 22일-화산동 1·2반, 반회장님은 미리 방문하여 알려주시고 당일 신부님과 같이 방문해 주세요
  2. 이세시리아 수녀님 영명축일 : 22일 수고하시는 수녀님께 기도와 축하를 드립니다
  3. 중·고생 성가경연대회 : 24일
  4. 교무금 미수금을 속히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축! 결혼 : 24일 오후 2시 서울 혜화동성당 신랑-김진관(바오로)군 신부-김남영(가다리나)양 사도회장 김성원씨 2녀  
24일 12시 복자성당 신랑-양재현(요양)군 사도회 부회장 양규철씨 차남 신부-이영옥(헬레나)양
  6. 금주 성당청소 : 월-사랑하오신 어머니pr  
토-순결하신 어머니  
차주 성당청소 : 월-다위의 탑pr, 토-셋별pr
  7. 금주전례 : 해설-최정순, 독서-①김화영 ②정동민  
차주전례 : 해설-김인식, 독서-①장세시리아 ②이상인
- 지난주 봉헌금 : 220,800원 교무금 : 518,200원

(상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김 영 신  
사무실 사도회장 이 정 우

1. 치과진료 : 공식미사 후
  2. 가정방문 일정 : 11월중 18일-내정, 19일-서당, 21일-백암, 22일-신흥, 23일-수월, 25일-계월, 26일-원희암, 27일-묘동 28일-마치, 29일-색장
  3. 오늘은 평신도의 날 : 특별 2차헌금 있습니다
  4. 우정의 날 : 27일(마지막 수요일) "농민 위안의 잔치의 밤"
  5. 본당 미화작업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바랍니다 11/12 현재 성금집수액-30세대 510,000원
- 지난주 봉헌금 : 96,780원 교무금 : 90,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반 석  
사무실 " 사도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1. 성모회 : 오늘(17일) 공식미사 후
2. 중·고생 성가경연대회 : 24일 성가연습 : 평일-저녁 8시~9시 토요일·일요일-저녁 5시~7시 ※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3. 85년도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 : 교무금 및 쫓대매금 미납하신 분은 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학생미사 시간변경 : 주일 9시에서 토요일 저녁 7시로 변경되었습니다
5. 축! 결혼 : 오늘(17일) 12시30분 신랑-정종영, 신부-김선휘
8. 다음주 전례

미 사	해 설	1 독서	2 독서	기 도
첫 미사	김은경	김길석	김숙임	윤 성 순
공식미사	김광수 고정수	송남용	차상열	교 육 분 과
저녁 미사	강경화	강경호	김은숙	고 현 주

- 지난주 봉헌금 : 일반-282,335원 중·고생-15,690원  
주일학교-7,300원 계 305,325원  
교무금 : 190,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기 곤  
수녀원 2-8347 사도회장 김 병 오

1. 성화회 : 공식미사 후
  2. 꼬미시움 : 오늘 오후 2시
  3. 글로리아성가대 정기총회 : 18일 오후 7시30분 성가연습실
  4. 다음주 봉헌담당 : 송재진 부부
  5.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기정희,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석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①배한수 ②고수창
  6. 전동 울드레아 : 24일 공식미사 후, 사무실 2층
  7. 축일 : 세시리아-22일 김  
다음주 공식미사 후 김세시리아 수녀님 축하식 있음
- 지난주 봉헌금 : 900,140원 교무금 : 279,5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도회장 이 교 성  
수녀원 2-4804

1. 오늘은 평신도의 날  
평신도 강론 : 6시-채수현, 9시-유병환, 10시30분-양광식, 저녁 7시-이창욱
  2. 예비고사 수험생 미사 : 19일 저녁 7시
  3. 성모회·울드레아 : 오늘 11시30분
  4. 주부 성서대학 : 20일 오전 10시, 에제키엘 ②
  5. 건축현금 : 10만원-양광식, 5만원-황은옥, 1만원-김순여·김용포
- 지난주 봉헌금 : 457,010원 교무금 : 194,500원  
건축현금 : 170,000원